

중국 방문 김영록 지사, '글로벌 고향사랑 캠페인' 시동

향저우서 중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한인회와 간담회 고향사랑기부제·의대 유치 등 도정 현안 힘 모으기로

전남도가 30여년 넘게 한·중 대표 우호 지역으로 관계를 돈독히 해온 중국 저장성에서 글로벌 고향사랑 실천 캠페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오후 저장성 항저우에서 중국호남향우회와 한인회, 현지 기업인 등을 초청해 글로벌 고향사랑 실천 확산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원봉 중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명예회장, 최병희 상하이호남향우회장, 남경희 상하이광주·전남향우회장, 장석민 항저우한인회장 등 중국 향우와 저장성 현지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가입과 고향사랑기부제, 국립의대 유치 등 도정 현안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실제 중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는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1천명 가입을 약속하고 김원봉 명예회장과 손재민 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쾌척하는 등 글로벌 고향사랑 실천에 앞장 서기로 했다.

상하이호남향우회, 상하이광주·전남향우회, 항저우한인회도 '전남 고향사랑 365 기부 릴레

이 캠페인' 응원에 동참하는 등 고향사랑 실천을 위해 중국 호남향우들이 뜻을 한데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중국 현지 정서를 반영해 특별 제작한 전남사랑도민증을 직접 전달하며 전남에 방문해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김원봉 명예회장은 "중국호남향우회는 전남에서 역점 추진 중인 국립 의대 설립, 특별자치도 설치, 고향사랑기부 등 전남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겠다"며 "나아가 세계 각국 호남 향우들도 글로벌 고향사랑 실천에 적극 동참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명예회장은 해외 호남향우회와 전남도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내년에 열릴 예정인 중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정기총회에 김영록 지사를 초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고향에 대한 향우들의 아낌없는 성원은 전남 발전의 기반이자 원동력"이라며 "해외 향우들과 교류·소통을 확대해 고향 발전의 토대를 함께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8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나라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중국 고향사랑실천 간담회'에 참석한 중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김원봉 명예회장 등 출향향우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 시 필요한 인종 절차를 다양화해 국외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보다 쉽게 서포터즈에 가입하도록 이메일 인증제를 지난 3월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전남지역 외에 거주하는 전남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휴대폰·인터넷 등 온라인이나 서면 가입 신청서를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에게는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해 전남도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식당·카페 등 200여 곳의 가맹점 할인과 남도장터 1만포인트 지급, 남도속박 1만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전남도와 중국 저장성은 1988년 우호 교류 협약 이후 1988년 자매결연으로 관계를 격상하는 등 교류·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김지사, 상반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 1위

한국갤럽 조사, 긍정 평가 65%...羨시장은 50%로 14위

김영록 전남지사가 올해 상반기 전국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를 1위에 올랐다.

8일 한국갤럽의 올해 1-6월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긍정 평가를 65%로 16개 광역단체장 중 1위를 차지했다.

김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연령별로 70대 이상에서 78%로 가장 많았고 40대·60대에서 각각 66%를 기록했다.

김 지사에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63%)와 김동연 경기지사(62%)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공동 4위는 각각 57%를 기록한 김관영 전북지사·홍준표 대구시장이었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긍정 평가를 50%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공동 14위에 머물렀다.

한국갤럽은 "시·도지사 직무평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속 조사한 결과"라며 "특정 시점 이 아니라 상반기 전 기간 지역 유권자들의 상시 평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의 광주지역 조사는 올해 상반기 만 18세 이상 47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5%p다. 전남지역 조사는 만 18세 이상 전남도민 7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6%p다. 세종시는 사례 수가 적어 순위를 적용하지 않았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www.gallup.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정기자

나경원 vs 강기정 '정율성 사업' 신경전

羅 "사업 철회" 촉구...羨시장 "이념 갈라치기 안타까워"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8일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나 후보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첫 권역별 합동연설회 참석에 앞서 동구 불로동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나 후보는 "정율성은 중국에서 군가를 작곡했고 6·25전쟁 주범 중 하나인데 정율성으로 역사공원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민주화 역사공원으로, 광주 근현대 역사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즉각 발끈했다. 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

리시(광주시)에 맡겨둬도 지체롭게 풀어갈 수 있다"며 "오늘 나경원 의원이 광주에 오자마자 정율성 문제를 들고 나섰다. 이념 갈라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당 대표 후보의 행보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시장은 "나 후보가 광주를 찾아 가장 먼저 해야 할 이야기는 5·18, AI, 미래차, 공공항문제가 아닐까"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국 3대 음악가로 꼽히는 정율성은 1988년부터 한·중 우호 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그의 고향인 광주와 화순에서 각종 기념사업이 펼쳐졌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당시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이 정율성의 북한·중국 행적을 문제 삼으며 광주시가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추진 철회를 요구해 이념 논쟁의 대상이 됐다. /박선경기자

광주시, 생체이식형 융합의료기기 실증도시 도약

산업부 '혁신기반구축사업' 선정

광주시가 생체이식형 융합의료기기 실증도시로 도약한다.

광주시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돼 골결손 부위를 대체하는 세계적 수준의 맞춤형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포함 총사업비 185억원을 투입, 골대체 융합의료기기의 핵심 기술인 적층제조(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임플란트 제작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제품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골결손은 수술 난이도가 높고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적층제조 기술을 적용하면 의료기기를 맞춤형 제작할 수 있어 환자의 수술 안전성 확보와 회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박선경기자

Worldwide Partner

PARIS 2024 공식 스폰서 안마의자

REAL PRO MAN1

파리 항공권 증정
대한민국 승리기원
EVENT

기간: 2024.06.28 ~ 2024.08.11

EP-MAN1 (아이보리)

GOOD DESIGN AWARD 2023

1 MAN1 구매고객 전원 증정

- 50만원 할인
- 20만원 상품권 + 무선 청소기 WDD91 증정

2 MAN1 구매고객 추첨 증정

1등

파리 항공권 티켓 2매

1명

2등

헤어드라이어 EH-NOJ

10명

※이벤트 상세내용 www.panasonic.kr/event 참조

파나소닉 프라자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522-2000
062)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